

“6자회담 필수적” VS “결과 불만족”

<클린턴>

<게이츠>

새로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대북한 및 북핵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의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두 기동인 국무·국방장관이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지금까지 6자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검증합의서 서명 거부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된 북핵 6자회담이 오바마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될지 여부와 함께 지속될 경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강인(tough)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대북정책의 큰 틀로 공식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오바마 정부의 대북 및 북핵정책 재검토가 6자회담에

美 국무·국방, 6자회담 관련 이견 표출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 주목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면서 “6자회담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북한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다루는 데도 회담 참가국들에 유용했다”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6자회담의 틀을 적극 활용하는 등 6자회담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클린턴 장관은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서도 6자회담과 별개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6

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지금까지 북핵 6자회담 성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6자회담 추진양상이 전임 부시 행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게이츠 장관은 서면으로 제출한 발언에서 “북핵 6자회담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데 일정 정도 전략적 모델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의 결과에 완전히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자회담은 북한이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거나 우라늄을 농축하는 능력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확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한다”고 6자회담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다시 말해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문제와 핵확산 문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게이츠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북한이 핵야욕을 완전히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6자회담이 성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과 안보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이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및 북핵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어떤 절충안이나 보완책 또는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간언 잘 받아들여야 명군”

한나라 정두언 의원

지인들에 ‘정관의 치’ 선물

한때 이명박 대통령의 ‘심복’으로 통했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국회 출입기자, 지인들에게 설 선물로 중국 당(唐) 태종 이세민(李世民)의 치세를 담은 ‘정관의 치(治)’라는 책을 보내 관심을 끌었다.

정 의원은 책과 함께 보낸 편지글을 통해 “중국 역사상 가장 정치를 잘한 군주로 당 태종을 친다”면서 “당 태종이 정치를 잘한 것은 ‘정관의 치’를 보면 저절로 답이 나온다”고 책 선물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당 태종의 화합 정치를 거론하며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오는 ‘납간(納諫: 간언을 받아들인다는 뜻)’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납간을 철저히 실천하면 명군(名君)이 된다는 사실을 이 책은 너무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관의 치에 등장하는 충신들의 등골이



씨늘한 간언들을 보면 절로 탄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태종은 충신들의 간언에 진저리를 치면서 끝내 그 시스

템을 견뎌냈다. 그랬기에 명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정 의원의 책 선물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간접적 고언(苦言)이면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경고(警告)의 의미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정 의원은 편지글에서 “과연 나도 (당 태종처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저런 쓴소리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말한 부분도 이 대통령을 향한 발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 의원은 28일 “특별한 뜻을 두고 책을 선물한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납간은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냐”고 말했다. 쓸데 없는 논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대북특사 지명 지연... 한·미 협의 어정쩡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특사 지명이 늦어지면서 한·미 간의 북핵협약에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이 사실상 휴지기이기는 하지만 검증의정서 채택 문제 등 북핵 협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미국 카운터파트가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문제 담당특사로 조지 미첼 전 상원의원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특사에 리처드 홀브룩 전 유엔대사를 각각 임명했지만 대북 특사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대북특사로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이나 현재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윌슨을 지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퍼 윌슨 국무부 차관보,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 등이 두루 거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미국 언론들은 대북특사가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내에서도 협상 방향과 관련해 적잖은 논란이 있는 등 일하기 어려운 자리라는 점에서 적극 나서서 인물이 없어 인선이 늦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아직까지 대북특사를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분리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김정일 위원장 발언 긍정적”

정부는 ‘6자회담의 진전을 희망한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사실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28일 밝혔다.

김훈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면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6자회담의 진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 같이 논평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북한이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협력을 저해하는 제반 조치들을 하루 속히 철회하고 우리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도록 협력관계를 넓혀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제위기 타개” 다보스포럼 개막

세계경제포럼(WEF·회장 클라우스 슈밥) 주최 ‘다보스포럼’이 한승수 총리 등 세계 91개국 지도급 인사 2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8일(현지시간) 닷새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영국의 환경활동가 스티브 하워드(가운데)가 기후 변화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후계자로 나를? 사실 아니다”

北 김정남 마카오행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38·사진)이 지난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을 출발해 마카오로 떠나면서 “중국이 자신을 후계자로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정남은 이날 오후 베이징 서우두공항

에서 마카오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차기 지도자로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질문에 “그건 사실이 아니며 잘못된 정보”라고 부인했다고 일본의 NTV 등이 보도했다.

김정남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아버지의 지위는 누가 이어받게 될 것이다”고 묻자 “아무도 알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美 상원 재무위 감세·지출안 승인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27일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5천 220억달러 규모의 감세 및 재정지출 안을 통과시켰다고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져 찬성 14표, 반대 9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2천 750억달러의 감세와 실업자 의료보험 유지 및 지방정부 보조 등을 위한 1천800억달러에 중산층에 대한 대체최저세를 1년간 유예하는 데 소요되는 약 700억달러가 추가됐다.

이날 재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3천656억달러 규모의 지출안과 더해진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정부가 마련 중인 경기부양책 규모가 9천억달러 수준에 육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표결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사당을 찾아 감세 및 재정지출 규모를 이유로 경기부양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 연쇄 접촉을 갖고 “미국 국민은 행동을 기대하고 있다”며 초당적 견지에서 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리첸 RITCHEN

리첸 광주광역시 광주직영전시장 **OPEN**

062-5115-2272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제주도 여행 패키지 103,000원

064-744-1109